



금관가야 왕들의 마지막 안식처

김해 대성동고분군

대성동고분군은 전기 가야의 중심 고분군으로 가야의 성립과 전개, 성격, 정치사회 구조를 해명하는 데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유적이다. 특히 금관가야 전성기의 문화를 보여주는 토기, 장신구, 철제품, 말갓춤새 등이 출토되는 등 우리가 보존해야 할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대성동고분군을 통해 금관가야에 대해 알아보자.

글 박영민 기자 사진 조용학 기자(항공 사진 허준 기자)

금관가야 왕들의 무덤과 대성동고분군 전경.

국립김해박물관과 김해 수로왕릉 사이의 동서로 뻗은

구릉지대에 있다. 우측에 보이는 원형 건물이 태성동고분박물관이다.

김해 대성동고분군은 국립김해박물관과 김해 수로 왕릉 사이에 동서로 뻗은 가야의 무덤들이다. 길이 약 300m, 높이 20m 정도의 구릉지대로, 경사가 완만해 무덤이 있기에 매우 적합하다. 고분군에 인접하여 고분박물관이 건립되어 있다.

발굴조사 결과 1~5세기에 걸친 가야 지배집단의 무덤 자리로 고인돌을 비롯하여 널무덤(토광묘), 덧널무덤(토광목곽묘), 굴식돌방무덤(횡혈식 석실묘) 등 여러 형식의 무덤이 발견됐다. 구릉 주변 평지에는 1~3세기, 구릉 정상부에는 4~5세기 무덤이 밀집돼 있어, 삼한 시대 구야국 단계에서 금관가야 시기까지의 무덤이 발견되고 있다.

덧널무덤은 나무판을 조립하여 널(관)을 만든 것으로, 이전에 통나무관을 이용하던 것에서 나무판 널을 사용하는 시기로의 전환이 1세기경임을 보여준다. 유물로는 토기류와 철기류, 목류, 중국제 거울 등이 출토됐다. 우리나라 고대 무덤 형식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며, 중국제 거울이나 토기류에서 한·중·일의 문화교류 상황을 밝혀 주고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대성동고분군의 발굴성과

대성동고분군이 본격적으로 학술발굴돼 학계에 알려진 것은 1990년 6월이다. 대성동고분군의 발굴은 구릉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시작해 2020년까지 총 10차례에



지난 1990년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대성동고분군 발굴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련 사진들을 전시해 놓았다.



대성동고분군에서 출토된 뚜껑이 있는 손잡이가 달린 굽다리 항아리.

걸쳐 이뤄졌으며, 제1차 발굴조사 결과 유적의 중요성이 인식돼 1991년 1월에 사적 제341호로 지정됐다. 그 후 현재까지 총 200여 기의 무덤과 청동기시대 지석묘 등이 확인됐다.

경성대박물관이 시행한 1~3차 조사에서는 3~5세기 전기의 대형 덧널무덤과 2세기 전기의 나무 널무덤 등 가야 지배층들의 무덤이 처음으로 확인됐고, 4차 조사에서는 22기의 나무 널무덤과 3구의 순장 인골이 양호하게 남아있는 57호 분이 조사됐다. 대성동고분박물관이 자체 학술발굴을 시작한 5차 조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실물 안장과 은제 화이 조사됐다. 6차 조사에서는 5세기 후반 대형 돌덧널 무덤과 청동기시대 뚜껑 돌나무 널무덤이 대성동고분군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됐으며, 비록 파괴가 심하지만 공백으로 있던 4세기 초 대형 덧널무덤도 확인됐다. 7차 발굴조사에서는 대형 덧널무덤 2기와 돌덧널무덤 5기가 발굴됐는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확인돼 국내외 학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8차에는 점토로 밀봉한 초대형 목관묘인 70호의 주곽이, 9차에서는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5세기 중엽의 대형 목곽묘와 지석묘 등이 처음으로 발굴됐다.

그런데 사실 대성동고분군의 분포는 기존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범위(5만6762m²)보다 훨씬 넓게 자리하고 있다. 현재의 고분군 남쪽에 있는 수릉원(구 공설운동장)과 북쪽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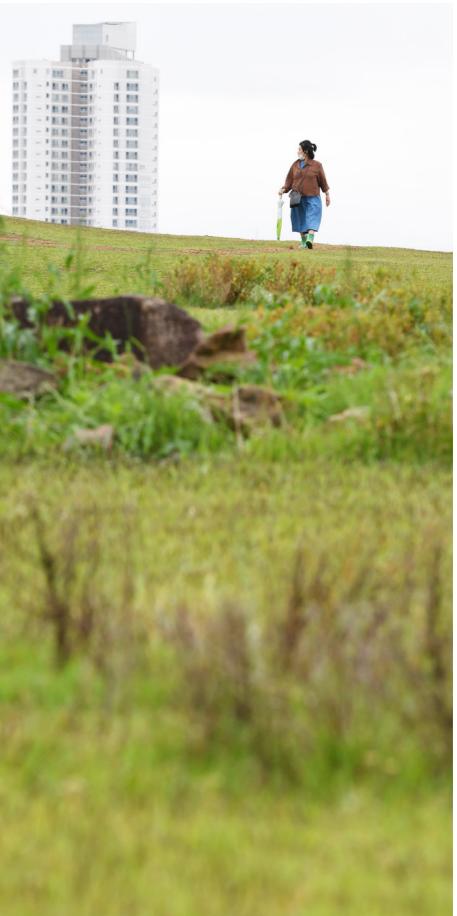
김해 대성동고분군 고인돌. 애구지 구릉 중심부의 평坦한 면에 위치한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이다. 언덕 정상에 단독으로 위치하고 있고 상당히 공을 들여 매장 시설을 만든 것으로 보아 청동기 문화를 이끌었던 인물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성동 88호분에서 발굴된 3인의 순장자 중 아래에 놓인 2인의 순장자 유골. 이들은 여성과 남성으로 밝혀졌다.



항아리와 화로모양 토기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그릇받침과 굽다리접시 등이 대성동고분군에서 많이 출토됐다. 이 토기들은 부드럽고 세련된 곡선미를 특징으로 하는 가야 토기문화를 잘 나타내고 있다.



많은 김해 시민이 휴식처로 찾는 대성동고분군. 한 시민이 비가 간 오후 대성동고분군 산책길을 걷고 있다.

로 개설(구지로) 구간도 기존의 대성동고분 구릉과 연결 선상에 있고, 또 같은 성격의 분묘 유적임이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됐으므로 이 역시 대성동고분군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수릉원부는 구릉의 중앙 능선부가 전부 평정돼 일부 사면부 및 평지 부분만 남아 있어 그 전모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2세기대의 목관묘를 비롯해 5세기 후반~7세기에 이르는 분묘가 발굴됐는데, 대성동고분군의 주 능선부보다 시기적으로 후속하는 무덤들이 다수 확인됐다. 운동장 조성 등으

로 없어진 능선부에는 당시의 대형 지배계층 무덤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대성동고분군 구릉에서는 청동기 시대 후기 지석묘와 패총 등이 조성되다가 1~2세기대가 되면 목관묘가 구릉 주변 평지에 조성되기 시작하고, 2세기 후반대에 목곽묘가 처음 출현하는데 대성동고분군 구릉의 북쪽 말단부에서 조영되기 시작한다.

목곽묘 중에서도 대형분들은 남쪽의 구릉 능선부를 따라 시기 순으로 축조되는데 5세기 전반이 되면 구릉의 정상부를 점유한다. 5세기 후반에는 구릉의 남쪽으



철제무기 중의 하나인 쇠투겁창. 양날의 몸체와 자루를 끼우는 투겁으로, 길이에 따라 단봉식, 중봉식, 장봉식 등으로 나누어진다.

로 내려가다 다시 수릉원 쪽으로 지속 축조됐다.

3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45호분은 본격적으로 구릉의 능선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3세기 후반에 축조된 29호분은 별도의 부장 칸이 있으며, 판상철부를 바닥에 깔아 시상면을 만들고 순장을 처음으로 했으며, 대량의 토기를 부장하는 등 권력과 부의 집중이 시작된다. 사실상 대성동고분군 최초의 왕묘로 인정받고 있다.

4세기 전반대가 되면 목곽묘의 깊이가 차츰 깊어지며 부장 칸이 독립한 부장 곽이 조성된다. 95호분의 경우 순장자의 수가 5

명인데, 목곽 내부에 3인, 외부에 2인을 부장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전통은 바로 뒷단계인 88호분에도 계승된다. 4세기 후반대가 되면 묘광의 깊이가 2m를 넘어 더욱 깊어지며 바닥에 머리 크기의 판석을 전면적으로 깔아 시상면을 마련한다.

5세기 전반에 되면 묘광이 3m 이상으로 아주 깊어지는데, 묘광의 축조도 이전과는 달리 구릉의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게 들어선다. 목곽의 바닥 전면에 시상면을 마련하는 것은 앞 시기와 같지만, 판석 대신 자갈 크기의 작은 깬 돌이 사용되는 점이 다르다.

이처럼 대성동고분군에 나타난 금관가야 최고 지배계층의 무덤 변화 과정의 특징은 시작과 끝까지 독립된 단독 구릉과 그 주변 일대에 집중적으로 무덤을 축조했다는 것이다.

70~10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무덤 간에 중복되는 예도 있다. 이는 가야 고분군을 비롯해 같은 금관가야 권



대성동고분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금관가야의 시조 수로왕의 무덤인 김해수로왕릉. 높이 5m, 사적 제73호로 원형봉토분이다.



대성동고분군 산책로를 걷다 보면 잎이 풍성한 나무를 만날 수 있다. 김해 시민들이 나무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많이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석제 무기의 하나인 간돌칼. 주로 고인돌이나 돌널무덤 같은 무덤 유적에서 돌화살촉과 함께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대성동고분군에서는 철기를 이용한 말갓춤과 무기, 쇠갑옷 등이 출토됐다. 사진은 철의 왕국 가야를 잘 나타내고 있는 투구를 비롯해 비늘갑옷, 쇠도끼, 말안장, 재갈과 발걸이.



국보 제275호 기마인물형 도기와 가야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을 참고해 청동주물로 제작한 가야 기마병 조형물. 가야의 우수한 철기문화와 강력한 군사력을 표현하고 있다.

역 지배계층의 묘역인 복천동고분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유독 대성동고분군과 양동리고분군 등 김해지역에 한정돼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배계층 묘의 중복 현상을 지배세력의 교체로 해석하는 예도 있으나 대성동고분군의 하부 피지배 집단인 예안리고분군의 중복 사례를 보면 단순히 무덤 공간의 부족으로 기인한 가능성도 오히려 크다고 할 수 있다.

대성동고분으로 본 금관가야의 국제성

가야의 여러 고분군 중 시기상으로 가장 빨리 조성된 것이 대성동고분군이다. 사실 그 외에는 대가야의 지산동고분군이나 아라가야의 말이산고분군 등에 비해 대성동고분군의 규모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작은 편에 속한다. 지하에 무덤 칸을 마련하는 목곽묘라는 구조 특성으로 인해 거대한 봉분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라



대성동 1호분 덧널무덤을 재현해 놓은 것. 사진의 사람 모형은 순장자로 추정되는 인골흔 5구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1세기 최고지배자의 무덤으로 보이는 가야의 숲 3호 널무덤. 부장품을 묻기 위해 바닥에 설치된 요갱이 특징이다.

도 실제의 매장주체부 역시 규모와 축조 기술 등의 면에서 비교하기 힘들 정도다. 그런데도 대성동고분군이 가야 고분군을 대표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출토된 유물의 가치 때문일 것이다.

대성동고분이 축조되는 금관가야 시기가 되면 교역 대상이 더욱 다양해지는데, 기존의 교역 지역 외에도

중국의 북방지역과 일본의 긴끼 지역으로 확대된다. 91호분에서 출토된 조개 장식 말갓춤의 경우 오키나와 산조개껍질을 가공한 것인데 재료는 일본을 통해 수입하고 기술은 중국 동북지역의 마구를 모방해 김해지역에서 제작했다. 세부적으로 일본의 야마토 세력이 오키나와 인근의 조개껍질을 긴끼 지역에서 모아 가야와 간접

적으로 교역했다는 설과 가야가 오키나와 쪽과 직접 교역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당시의 정치적 여건이나 해류의 흐름, 조개껍질의 가치 및 타 유물들의 교역 상황을 보면 가야와 오키나와 인근의 직접 교역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대성동고분군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무덤은 지석묘, 옹관묘, 목관묘, 목곽묘, 석곽묘, 수혈식 석곽묘 등 여러 종류가 확인됐다. 목관묘는 주로 구릉 주변의 낮은 곳과 평지에 조성됐으며, 목곽묘, 수혈식 석곽묘와 같은 대형 무덤은 입지조건이 좋은 구릉의 능선 부에 자리 잡았다. 발굴조사 결과 애구지의 대성동고분군은 금관가야 지배층의 묘역과 피지배층의 묘역이 별도로 조성됐음이 밝혀져 금관가야의 실제 파악에 중요한 자료라는 데 큰 의미를 담고 있다. ▣

(취재협조 김해대성동고분박물관)



갑옷을 입은 금관가야의 무사 모형. 금관가야의 무사 갑옷은 철판을 재단해 만든 판갑과 작은 비늘모양의 첨조각으로 구성된 비늘갑으로 구분된다.



순장은 대성동고분군의 대형무덤에서 주로 확인되며, 대성동고분군의 순장자는 덧널 안 또는 충전토 안, 구덩이형 말린덧널 내에 매장됐다. 당시 순장을 재현해 놓은 디오라마.



대성동고분 모형을 알기 쉽게 재현해 놓은 대성동고분박물관 전경. 금관가야사와 시대별 발굴 현황 및 배치 정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